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연령회	평일	06:30 (새벽), 19:00(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알 림

- 12월 12일(일) 교중 미사는 새 신부님(허득진 다니엘) 첫 미사입니다.
- 12월 19일(일) 2022년 본당 예·결산 심의가 있습니다.
- 12월 05일부터 중고등부 주일 미사가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1일(토)부터 성당에서 장례미사만 가능합니다.(장례식장은 아직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일상 회복 1단계에 따른 변경 사항
 - 11월 1일(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성당 인원 50% 입장 가능(330명)
 - 레지오 및 소모임 시작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매일미사책 판매가 조정 안내
 - 2022년 1월호부터 조정
 - 일반판 : ₩1,300 / 특대판 : ₩1,800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병자영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자선 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모 임

꾸리아 월례 모임	일 시	장 소
1Cu.	12/12(일), 12시	강 당
2Cu.	12/12(일), 13시30분	강 당
3Cu.	12/19(일), 12시	강 당

● 대림시기 준비

- 대림절 신앙실천 봉투(대림저금통), 대림절 기도문, 판공성사표, 달력 등은 구역·반장님을 통해서 배부합니다.
- 구역 외 신자는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판공성사
 - 11월 27일(토)~12월 19일(일) 매 미사 30분 전후에 실시합니다.
 - 본인의 고해만 간략하게 합니다.
 - 별도의 판공성사 일정은 없습니다.
- 2021년도 교무금 납부 및 2022년도 교무금 책정합니다.

● 대림 특강 (목요일 저녁 19:40)

날 짜	제 목
12월 16일	생태적 회심 3

● 성탄 및 송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24일 (금)	아침미사	아침 6:30
	성탄 밤미사	저녁 8시 (저녁7시 미사 없습니다.) ※ 대림신앙실천표(대림저금통)제출
25일 (토)	성탄 대축일	10:30(성탄 대축일 미사) 16:00(초등부 주일), 19:00(토요주일) (6:30 미사는 없습니다)
31일 (금)	아침미사	아침 6:30
	송년미사	저녁 8시 (저녁7시 미사 없습니다.)
2022년 1/1(토)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06:30, 10:30, 16:00(초등부 주일), 19:00(토요주일)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안내

-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본당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이 됩니다.
 - 12/23(목)까지 납부자 변경(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및 주민등록 번호 등을 사무실에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번호 수집동의서를 제출(2017년 이후)하신 분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주일(12/19)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5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2월 01일 ~ 12월 07일)

• 교 무 금		14,473,000원	
• 주일헌금		3,943,500원	
	김수자10만원	김○○ 5만원	최은화 7만원
	서만심 6만원	김미혜10만원	오준택 5만원
	노갑열50만원	박정숙10만원	서영준10만원
• 감사헌금	최남준10만원	정도선10만원	김형주20만원
	이상훈30만원	한갑남20만원	박승윤10만원
	조민희 3만원	이순규10만원	김태훈10만원
	유○○2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12/12	황원선	김영균	김진수	장익근	정홍자
12/19	유명진	조흥환	최상림	최웅조	정재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2/12	박승환	오광운	박형순	최석준	박용환
12/19	박용환	최영만	박승환	김인기	오광운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민족들의 권리

124. 오늘날 지상 재화의 공동목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따라, 이 원칙은 국가와 국가의 영토와 자원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사유 재산과 시민권의 관점뿐만 아니라 재화의 공동목적인 제1원칙의 관점에서 본다면, 각 나라 영토의 재화가 다른 곳에서 온 궁핍한 사람에게는 주어져야만 하기에 각 나라는 외국인에게도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교들이 가르쳤듯이, 기본권은 “모든 사회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진 존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5. 이는 국가 간 관계와 교류에 대한 다른 이해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을 지닌다면,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자매라면, 세상이 참으로 모든 이에게 속한 것이라면, 누군가 여기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경계 밖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조국도 그의 발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긴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너그럽게 환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 나라의 천연자원을 착취하거나 고갈시키지 않고, 품위 있는 인간 발전을 가로막는 부패된 체계에 대한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그들 고국의 생활환경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각 나라의 여러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지역 간에도 대개 커다란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평등한 인간 존엄을 인식하지 못하면 일부 나라의 좀 더 발전된 지역들은 더 가난한 지역들의 ‘무거운 짐’을 폐기함으로 자신의 소비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26. 우리는 새로운 국제 관계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들 또는 소규모 단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협력의 차원에만 머물러 생각한다면, 세상의 심각한 문제들은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은 우리가 국제 관계의 윤리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실제로 정의는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와 민족들의 권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요구합니다. 이는 “민족들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길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때때로 대외 부채의 압박으로 심각하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채 상황은 발전의 축진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발전에 심각한 제한과 제약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부과된 모든 부채는 상환해야 한다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결국 그 나라들의 존립과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127.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대안적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하는 말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양도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을 지닌다는 사실에서 파생된 권리들의 대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류를 꿈꾸는 도전에 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 집, 일자리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세상을 열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과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무분별하고 근시안적인 전략이 아니라 참 평화의 길입니다. 참되고 항구한 평화는 “온 인류 가족이 서로 의존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미래에 이바지하는 연대와 협력의 세계 윤리를 기초”로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